

교회 - 2부 중 2부

**“그[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니, 그는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 이는 모든 것에서 그분이 첫째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18

지난달 『새벽 잡지(The Dawn)』에 실린 “교회”라는 주제에 대한 첫 번째 기사에서,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 예수님의 첫 번째 강림 이후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의 의미, 물 세례의 상징,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고찰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다룰 주요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두 사도와 교회의 다른 종들의 역할; 교회의 사명;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천상적 단계와 지상적 단계.

열두 사도

신성한 계획에 따라 오순절부터 시작된 온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열두 사도에게 섬김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10, 14; 에베소서 2:19, 20) 이에 따라 예수께서는 사역 기간 동안 그분과 동행할 열두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이 그분으로부터 직접 훈련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르톨로메오, 도마,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다대오, 시몬, 유다였습니다. 마태복음 10:2-4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다는 신의를 저버렸으며, 성경은 주님께서 그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으로 바울을 택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23-26에는 남은 열한 사도들이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한 사람을 뽑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티아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내려진 것이었으며, 주님께서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셨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 후로 마티아스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그리스어: “apostolos”)라는 단어는 “파송된 자”, 즉 복음의 대표자나 사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넓은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위한 사절”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20) 사실, 성경에서 ‘아포스톨로스’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선택받은 열두 사도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지칭할 때도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13:16; 빌립보서 2:25)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들에게 신성한 임명으로 부여된 것과 같은 높은 권위의 지위를 교회에서 차지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께 주신 자들로, 신성한 임명을 받은 열두 사도를 언급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사도들은 그 직분을 위해 서로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유다를 대신할 마티아스를 선택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이들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부활 후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때와 방식에 따라 바울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열두 사도 중 한 사람으로서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열두 사도는 단순한 복음 전도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기적적인 감동을 받아, 권위와 정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메시지를 말하고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씀은 과거에도,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신성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교회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이러한 권위 있는 지위 때문에, 완성된 교회는 한 도시에 비유됩니다. 이 상징적인 도시는 열두 개의 기초 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며, 이 돌들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14

다른 종들

에베소서 4:11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교회 안에 다른 종들을 세우셨다고 알려줍니다. 사도들 외에도 선지자, 전도자, 목자,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저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2) 이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으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도들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말씀도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21

그러나 바울이 예언자들을 교회의 종으로 언급할 때는, 이 용어를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하여 복음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이들에게 적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2:28; 에베소서 4:11; 사도행전 11:27, 28; 사도행전 15:32; 사도행전 21:10, 11) 이러한 선지자, 전도자, 목사와 교사들은 모두 교회에서 필수적인 종들이지만, 열두 사도들처럼 영감을 받은 것은 아니며, 사도들이 그랬던 것과 같은 기적적인 방식으로 임명된 것도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다”는 표현은, 그리스어 원문인 ‘ ’에 따르면, 투표와 같이 ‘손을 들어’ 지명하는 것을 더 정확히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4:23) 여기서 분명히 암시하는 바는, 장로와 집사 등 교회의 하급 사역자들은 그들이 섬길 회중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구절에서도 볼 수 있는 성경적 용어인 “장로”는 일반적으로 영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섬기는 남성들을 가리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 교사, 전도자, 또는 선지자도 “장로”라는 일반적인 범주에 포함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번역된 그리스어 “presbuteros”는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는 이 용어가 신앙이 확고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를 지칭합니다.

“감독(bishop)”이라는 단어도 신약성경에 사용되며, 교회에서 선출된 남성 사역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단어가 번역된 그리스어 “에피스코포스(episkopos)”는 “총감독” 또는 “감독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장로는 기회와 능력에 따라 교회 내에서 본래적으로 감독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양 떼를 돌보고, 특히 영적인 면에서 그들의 필요를 챙기는 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디모데전서 3:1, 2; 디도서 1:7

“집사”라는 단어도 초기 교회의 조직과 관련하여 몇 차례 등장합니다. 이는 “심부름을 하다” 또는 “돌보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디아코노스(diakonos)”를 번역한 것입니다. 성경은 집사들이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서 교회의 물질적 업무를 돕기 위해 임명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중 최초로 임명된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2-4; 디모데전서 3:8-13

회중이 장로(감독)나 집사로 섬기도록 적절히 선출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성경적 자격 요건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3:1-13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 요건 중 “가르치는 데 적격한 자”라는 표현은 성경에

가르쳐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춘 형제들이 있는 전념한 신자들의 모임은, 규모에 상관없이 성경에 따라 그들을 이러한 사역에 선출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출되면, 이러한 임명은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성경은 어떤 기독교인 모임도 종들을 선출하고, 모임을 가지며, 주님의 사역을 수행할 권한을 얻기 위해 모교회에 의존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들이 이러한 면에서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 규모가 클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사도 시대에 많은 교회들, 즉 기독교인 모임들은 신자들의 가정에서 조직되었으며, 그 가정에서 정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16:5; 고린도전서 16:19; 골로새서 4:15)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그룹—혹은 성경적 의미에서 ‘교회’—로서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이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신다. 이들은 단순히 손을 들어 표결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일꾼을 선출할 수 있다. 회원 명부는 필요하지 않으며, 성경에서도 그러한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초기 교회의 여러 모임이 어떤 성격을 띠었는지를 나타내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들과 다른 이들은 때때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더라도 유익한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제별이나 문맥별로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에서, 참석자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질문할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장로가 선출된 경우, 그 장로는 모임이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돕아야 합니다. 기도, 찬양, 간증 모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이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현재 사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차 있을 섬김의 사역을 위해 성도들을 온전하게 [그리스어: 온전히 갖추지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12, 13) 둘째, 각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품성의 열매와 은혜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22, 23; 베드로후서 1:5-8) 셋째, 지금 곧 임할 그리스도의 축복의 왕국에 관해 세상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14

이 주제에 대한 첫 번째 고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6:18) 제때에 “세워진” 것은 완성 단계에 이릅니다. 교회의 “건축”이 영원히 계속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될 모든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그리스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부름 받아 나온 자들”이며, 이는 현재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개념과는 상반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 받아”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6; 베드로전서 2:9) 그 수는 “적은” “작은 양 떼”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13, 14; 마태복음 22:14; 누가복음 12:32) 약속된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할 때까지 세상 전체를 개종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10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6:16) 이 표현은 예수를 구약의 메시아적 약속과 동일시했으며, 베드로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해 보내신 분을 올바르게 인식했음을 나타냅니다.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명확히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약속들을 명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일에 그분과 동참하기 위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22:18) 갈라디아서 3:16에서 바울은 이 약속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알려줍니다. 사도는 약속의 후손에 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갈라디아서 3:27과 29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를 입었느니라. ...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고, 죽기까지 신실하게 행하는 자들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약속된 “후손”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0

교회의 설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를 축복하시려는 그분의 계획의 시작일 뿐입니다. 야고보서 1:18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피조물 중 “일종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14:4에서도

사용되며, 하나님의 왕국의 하늘의 단계인 상징적인 시온 산에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요한계시록 14:1; 히브리서 12:22, 23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교회와 세상 모두의 생명의 소망이 죽은 자의 부활에 달려 있음을 매우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한 것이 되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18) 그러나 그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부활에 대한 확신과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22

그런 다음 바울은 부활에 분명한 순서, 즉 단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각 사람은 자기 차례대로: 그리스도는 첫 열매이시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분의 재림 때에 부활하리라.” (고린도전서 15:23) 여기서 언급된 “첫 열매”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어 원문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후, [교회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순서에 따라] 그리스도의 임재 중에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재림”이라는 단어는 “현존”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파루시아(Parousia)”에서 번역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죄와 죽음을 멸하고, 온 인류가 그분의 흘리신 피로 주어진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일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 통치할 천년 왕국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어지는 바울의 설명은 분명합니다. “그 후에 끝이 오리니, 그 때가 되면 그분은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 드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리라. 그분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엮드리실 때까지 다스리셔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멸망할 원수는 사망이다.” (고린도전서 15:24-26)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위대하고 궁극적인 목적이며, 교회의 건축이 완성되었을 때 온 인류에게 미칠 ‘그 후’의 한 축복입니다.

하늘과 땅

바울은 부활에 관한 가르침에서, 어떤 이들은 천상의 몸을,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의 몸, 즉 지상의 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히는데, 각 경우를 결정하는 요인은 뿌려지는 “씨”나 “알곡”의 종류입니다. (고린도전서 15:37, 38) 바울이 언급한 “그것”이나 “알곡”은 단순히

한 사람의 정체성, 즉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쌓아온 생각과 성품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온전히 전념하고, 희생적인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사람들은 부활할 때 “천상의” 즉, 하늘의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40) 이는 그들이 현재 지상 생활의 남은 세월 동안 “새 생명” 안에서 행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6:4) 지상에서의 순례 기간 동안 그들은 “위의 것들에 마음을 두는” 법을 배우며, 그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들은 상징적으로 “하늘에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2; 에베소서 1:3) 따라서 그들은 아직 육신에 있을 때 영적인 성품을 “뿌립니다.” 부활 때, 이들은 하늘의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반드시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즉 세속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좋은 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늘의 것을 갈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이 죽을 때 세속적인 성품을 “뿌리는” 것은 사물의 본질 그 자체이며, 그

결과 그들은 “세속적인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40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첫 부활”로 묘사되는 교회의 부활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며, 비천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하며, 약한 것으로 심고 능력 있는 것으로 부활하며, 육신으로 심고 영적인 몸으로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42-44

이에 대해 바울은 “육체도 있고 영체도 있다”고 덧붙입니다. (고린도전서 15:44) 다시 말해, 그는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본성의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오직 이들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류는 죽음에서 회복될 것이지만, 그들만이 자연적이고 세속적이며 인간적인 몸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난 자요, 흙으로 된 자이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흙으로 된 자[인간의 소망과 욕망을 품고 죽는 자들]가 어떠한지, 흙으로

된 자[부활 시]도 그러하며, 하늘에 속한 자[지금 하늘의 것들에 마음을 두는 자들]가 어떠한지, 하늘에 속한 자[부활 시]도 그러합니다.” 고린도전서 15:47, 48

바울은 부활에 관한 이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 ‘죽음이 승리로 삼켜졌다’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 죽음아, 네 독침은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네 승리는 어디 있느냐?”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고린도전서 15:53-55

이처럼 바울은 몇 마디 말로 교회의 소망과 세상의 소망을 모두 제시합니다. 교회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영광과 존귀와 불멸”입니다. (로마서 2:7) 본성상 불멸을 지닌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질 상이다. 요한계시록 2:10에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첫 번째 부활에서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결실을 맺도록 이들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신 일은, 오순절 이후 현재 시대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일이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교회, 즉 “몸”의 마지막 구성원까지 영광에 들어갈 때 비로소 죽음의 멸망에 관한 구약의 그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성취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오, 죽음아, 네 독침은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네 승리는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55; 이사야 25:8; 호세아 13:14

바울은 이사야서와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인간의 큰 적인 죽음과 무덤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호세아 13:14에 사용된 “무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스올(sheol)”을 번역한 것으로, 신약성경의 그리스어 “하데스(hades)”에 해당합니다. 이 단어들은 여러 곳에서 “무덤”과 “지옥”으로 모두 번역되지만, 이 단어들이 나타내는 의미, 특히 “무덤”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죽음의 상태나 망각을 가리킬 뿐, 문자 그대로의 고통의 장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전도서 9:10; 시편 115:17; 사도행전 2:31)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옥의 문들”—무덤, 죽음—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18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죄와 죽음이 지배해 온 동안, 지옥—즉 무덤이나 묘지—은 계속해서 희생자들을 앗아갔지만, 요한계시록 1:18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구속주로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 열쇠들, 즉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는 권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분의 교회가 완전히 세워지면, 교회는 그분과 함께 온 인류에게 약속된 생명의 축복을 베풀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수백만 명이 계속해서 죽음, 즉 성경에 나오는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이 축복을 박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옥의 문은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했고, 그분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나머지 세상을 이기지 못할 것이며, 아담과 아담 이후로 죽은 모든 사람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신성한 능력으로 이 문들은 활짝 열릴 것이며, 죽음의 모든 포로들은 해방될 것입니다! 이사야 42:7; 이사야 49:9; 이사야 61:1; 누가복음 4:18

이것이 바로 교회의 미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이겠습니까! 지금 주님께

충성스러움을 입증해야 할 얼마나 큰 동기가 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일치를 누리고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사는 데서 오는 것보다 더 큰 평화와 기쁨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물론 시련은 있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의 무게”와 비교할 때, 이러한 시련들은 실로 “잠시 동안만” 지속되는 “가벼운 고난”에 불과합니다. 고린도후서 4:17, 18

현재 “부름 받은 자들”, 즉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축복받은 특권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히 구원의 계획이 지닌 아름다움을 드러내심으로써 그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이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축복, 즉 베드로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회복의 축복을 기뻐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임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3:21

교회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조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구원 계획을 고려할 때, 그 아름다움의 일부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났기에, 우리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오, 하나님의 풍성함과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큰가!”라고 기록했을 때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결정과 길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께 조언을 드릴 만큼 충분히 알겠습니까? 또 누가 그분께 그토록 많은 것을 드렸기에 그분이 갚아 주셔야 합니까?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며, 그분의 능력으로 존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로마서 11:33-36